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의 한의과대학 진학 동기 및 한의학의료에 대한 인식 조사

김현석^{1) #} · 김휘문^{1) #} · 김현호^{2), 3) *}

¹⁾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²⁾ 동신한방병원, ³⁾ 청연중앙연구소

The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est-Takers' Favor of Entering Korean Medicine College and the Perception toward The Korean Medicine

Hyun-Seok Kim^{1) #}, Hwimun Kim^{1) #}, Hyunho Kim^{2), 3) *}

¹⁾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²⁾ Dongshin Korean Medicine Hospital

³⁾ Chung-Yeon Central Institute

Abstract

Objectives : The study was aimed to analyze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test-takers' favor of entering Korean Medicine college and their perception toward the Korean Medicine. The study will present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for university administrator and in medical education field.

Methods :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comprising categories about the favor of entering Korean Medicine college, the experience and reason of receiving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 and the perception toward the Korean Medicine. Face validity and content validity of the developed questionnaire were tested before survey. Then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68 CSAT test-takers.

Results : The most positive reason of entering Korean Medicine college is the characteristic of job, while the negative one is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discipline. Respondents who answered as positive toward Korean Medicine are more than those who answered as negative. The most positive reason of receiving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 and perceiving Korean Medicine positively is because of its medical effectiveness. The most negative reason is responded as et cetera in both categorie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e survey may indicate that by promoting recent research progresses in Korean Medicine and benefits from choosing a career as medical professions, more CSAT test-takers will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Korean Medicine college entrance. Also by promoting the medical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to CSAT test-takers, more CSAT test-takers will receive or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Korean Medicine healthcare service.

• 접수 : 2019년 4월 30일 • 수정접수 : 2019년 7월 15일 • 채택 : 2019년 7월 22일

*교신저자 : 김현호,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 동신한방병원

351, Omok-ro, Yangcheon-gu, Seoul, Donghsin Korean Medicine Hospital

전화 : 02-2640-2700, 전자우편 : hyunho.kim@cymedical.org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Key words : Korean Medicine colleg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Questionnaires, Health Professions

I. 서론

한의학은 의학과 더불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과 별개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있어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예비한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졸업 후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한의사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¹⁾. 한의 의료를 포함한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하여 2015년 11,418,0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0년에는 15,427,4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²⁾. 국내에서는 73.8%의 국민이 한의 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전체 국민의 84.2%가 향후 한의 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³⁾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9세~29세 사이의 20대 연령대 중 43.1%만이 한의 의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령대 중 64.7%가 한의 의료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³⁾.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전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한의 의료의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내 한의 의료 시장에서는 20대 연령대는 한의 의료의 이용률이 적으므로 한의계 내에서 선결해야 할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한의 의료 및 한의학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의대생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⁴⁾, 대학병원 내 한의·양의 협진에 대한 인식 연구⁵⁾, 한의 의료기관 내 한의학 인식에 관한 연구⁶⁾ 및 서울시 대학생들의 한의학 인식에 관한 연구⁷⁾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직업 선택의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한의학을 포함한 대학전공 교육의 잠재적 수요자⁸⁾이자, 향후 한의 의료의 공급자 혹은 수요자가 될 10대와 20대의 한의학에 대한 기대치나 불만에 대한 동향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II. 방법

1. 설문 문항 구성 및 안면 타당도 확보

설문 내용은 선행 연구에 대한 조사 및 토론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은 기존의 연구⁹⁾를 바탕으로 하여 연령대, 성별, 거주지, 수능 응시계열 선택 항목을 묻는 '기본 정보' 항목,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호감도, 진학 호감도에 대한 이유,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수시 지원 여부를 묻는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호감 여부' 항목, 한의 의료 경험 여부, 한의 의료 경험에 대한 선택 요인, 가장 많이 받은 한의 의료, 한의 의료에 대한 호감도, 한의 의료 호감도에 대한 이유를 묻는 '한의 의료 호감 여부' 항목으로 총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의 치료 인식 연구⁷⁾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집하였다.

초기 설문 문항이 구성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지 1년 이내인 대학교 1학년 학생 및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확인하였다. 안면 타당도 논의를 바탕으로 가장 좋았던 치료 방식 항목의 선택지 세분화, 현재까지 한의원·보건소에 내원하여 한의 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설문연구 경험이 있는 한의과대학 교수에게 설문지의 내용 타당성 확인을 의뢰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기본 정보를 제외한 개발된 설문 문항은 Table 1에 기술하였다.

1)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호감 여부

특정 대학에 대한 이미지는 직접적으로 그 대학에 대한 잠재적 지원자들의 대학 선호도와 관계가 있으며, 대학 선택과도 연관이 있다¹⁰⁾. 한의과대학 진학 여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한의과대학 진학 호감에 대한 문항과 세부 문항을

Table 1. Questionnaires Items Designed for CSAT Test Takers

| Category | Number and title of questionnaires |
|--|--|
| Favor of entering Korean Medicine college | 1. What is your favor of entering a Korean Medicine college? |
| | 1-1. (Answered 'very positive' and 'positive') What is the biggest reason for your answer to your wish to attend the Korean Medicine college and Korean medical school |
| | 1-2. (Answered 'negative' and 'very negative') What is the biggest reason for your answer to your wish to attend the Korean Medicine college? |
| Favor of Korean Medicine healthcare system | 2. Have you applied the early decision admission system of Korean Medicine school? |
| | 3. Did you have experience of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 by visiting Korean Medicine clinic or public health center? |
| | 4. What is your most favored treatment of Korean Medicine? |
| | 5. What is your favor of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 |
| | 5-1. (Answered 'very positive' and 'positive') What is the biggest reason for your answer to the favor of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 |
| | 5-2. (Answered 'negative' and 'very negative') What is the biggest reason for your answer to the favor of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 |

구성하였다. 세부 문항은 크게 한의학의 '치료 효과',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 한의사 직업군에 관한 '직업의 특성', 및 '정부 정책', '기타'의 총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했다. 수시 응시여부를 묻는 항목은 한의과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적정 성적을 취득하였는지, 혹은 한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2) 한의 의료 호감 여부

수험생의 한의 의료 경험 유무 및 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은 이유, 혹은 한의 의료에 대한 호감도 여부를 판단하여 한의 의료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도의 차이 및 한의 의료를 받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 등의 연구⁹⁾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구성하였으며, 선택지는 한의 의료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한의원 · 보건소에 내원하여 한의 의료를 받은 경험의 유무' 및 '한의 의료에 대한 호감도', '한의 의료 중 가장 만족한 치료'로 구성하였다. 한의원의 특성상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한다는 행동이 호감 유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설문지 구성 과정에서 한의 의료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을 '한의 의료 호감 여부 카테고리'에 포함하였다. '한의 의료 경험 유무', '한의 의료에 대한 호감 여부'의 문항 응답에 따른 세부 문항은

'치료 효과', '학문의 특성', '직업의 특성', '정부 정책', '기타'의 총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설문 조사 방법

2017년 11월 04일 대치동 K빌딩 공간 내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사설 모의고사 수험생 200명 중 결시자 및 중도 퇴실자 제외 168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문지를 제공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시험 종료 후 쉬는 시간에 동의를 얻고 진행하였다. 설문에는 사전 연구목적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설문 응답 보상은 제공하지 않았다.

III. 결과

1. 참여자 기본 정보

총 116명이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자들 중 10대는 44명(37.9%), 20대는 72명(62.1%)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회 이상 응시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응답자 중 남성은 100명(86.2%), 여성은 16명(13.8%)이었다.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서울이 104명(89.7%)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유형은 인문계열이 1명(0.9%), 자연계열이 115(99.1%)명이었다. 응

Table 2. Bas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16)

| Age (N=116 of 116 subjects) | |
|---|------------|
| Teen(10~19) | 44(37.9%) |
| Twenties(20~29) | 72(62.1%) |
| Gender (N=116 of 116 subjects) | |
| Male | 100(86.2%) |
| Female | 16(13.8%) |
| Residence (N=116 of 116 subjects) | |
| Chungcheong province | 5(4.3%) |
| Gangwon province | 2(1.7%) |
| Gyungsang province | 1(0.9%) |
| Jeonla province | 2(1.7%) |
| Jeju province | 2(1.7%) |
| Seoul & Gyeonggi province | 104(89.7%) |
| Track choice for college entrance (N=116 of 116 subjects) | |
| Math-and science-heavy curriculum | 115(99.1%) |
| Social studies-focused curriculum | 1(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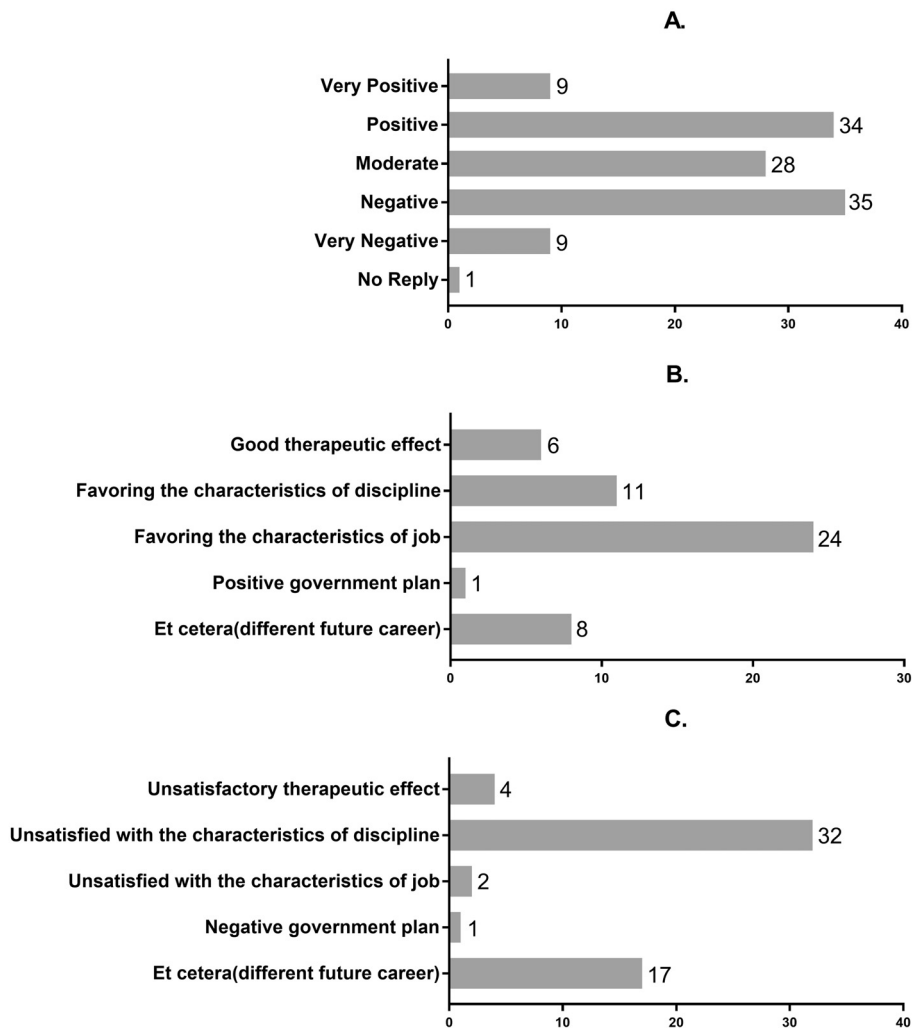


Figure 1. A. The favor of entering a Korean Medicine college(n=116), B. Positive reasons for entering a Korean Medicine college(n=50), C. Negative reasons for entering a Korean Medicine college(n=56).

*10 participants didn't replied to the survey related to B and C.

답자들의 연령대, 거주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유형은 Table 2에 기술하였다.

2. 한의과대학 · 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호감도에 대한 응답 결과

한의과대학 · 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호감도 응답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매우 긍정, 긍정 항목에 각각 9명(7.8%), 34명(29.3%)이 응답했으며 보통 항목에 28명(24.1%), 부정 및 매우 부정 항목에 각각 35명(30.2%), 9명(7.8%)이 응답하였고 무응답은 1명(0.9%)인 것으로 나타나 진학 호감도에 대한 긍정, 부정 각각의 응답 비율이 거의 유사하였다(Figure 1A). 그 외 설문 참여자들 중 ‘한의과대학 · 한의학전문대학원 수시전형에 응시했다’는 항목은 6명, ‘응시하지 않았다’는 항목에는 100명, 무응답은 10명이었다.

한의과대학 · 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한 긍정 응답 이유에 대한 응답자 중 무응답자를 제외한 응답 분석 결과, ‘직업의 특성이 만족스럽다’는 항목에 24명(48.0%)이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Figure 1B). 반면 한의과대학 · 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는 ‘학문의 특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목에 32명(57.1%)이 응답했으며, ‘기타’ 항목에는 17명(30.4%)이 응답하였다(Figure. 1C). 즉,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모두 학문의 특성에 대한 선호도가 1위를 차지하였다.

3. 한의 의료 경험 및 가장 만족스러웠던 치료에 대한 응답 결과

현재까지 한의원 및 보건소에 내원하여 한의 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의 응답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그렇다는 응답에 62명(53.4%),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44명(37.9%), 무응답 10명(8.6%)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한의 의료행위 중 본인이 가장 만족한 치료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는 침 치료가 51명(44.0%)으로 가장 많았다. 한의 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62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행위 중 본인이 가장 만족한 행위를 분석한 침 치료가 40명(64.5%), 한약 치료에 13명(21.0%), 뜸 치료에 2명(3.2%), 추나 치료가 1명(1%), 기타에 응답이 3명(4.8%), 무응답이 3명(4.8%)으로 침 치료 항목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의 치료 경험 유무 및 한의 의료 행위 중 본인이 가장 만족한 치료 행위에 대한 응답자 수 및 빈도는 Table 3에 기술하였다.

한의원 및 보건소에 내원하여 한의 의료를 받은 이유 중 세부 항목 응답으로 ‘치료 효과가 좋아서’라는 항목이 22명(36.7%), ‘사회적 인식이 좋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14명(23.3%)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한의원 및 보건소에 내원하여 한의 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중 세부 항목 응답으로 ‘학문의 특성이 의심스럽다’는 항목에 10명(27.0%)이 응답했고, ‘기타’ 항목에는 18명(48.6%)이 응답하였다(Figure 2).

4. 한의 의료 호감도에 대한 응답 결과

한의 의료 호감도의 응답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매우 긍정 항목이 12명(10.3%), 긍정 항목이 35명(30.2%), 보통 항목이 34명(29.3%), 부정 항목이 19명(16.4%), 매우 부정 항목이 1명(0.9%), 무응답은 15명(12.9%)으

Table 3. Experience of Korean Medicine Healthcare and Most Favored Treatment

(N=116)

| Experience of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 by visiting Korean Medicine clinic or public health center (N=116 of 116 subjects) | |
|---|-----------|
| Yes | 62(53.4%) |
| No | 44(37.9%) |
| No reply | 10(8.6%) |
| Most Favored Treatment (N=116 of 116 subjects) | |
| Acupuncture | 51(44.0%) |
| Formula (Herbal medicine) | 23(19.8%) |
| Moxibustion | 1(0.9%) |
| Massage (Chuna) | 3(2.6%) |
| Et cetera | 9(7.8%) |
| No reply | 29(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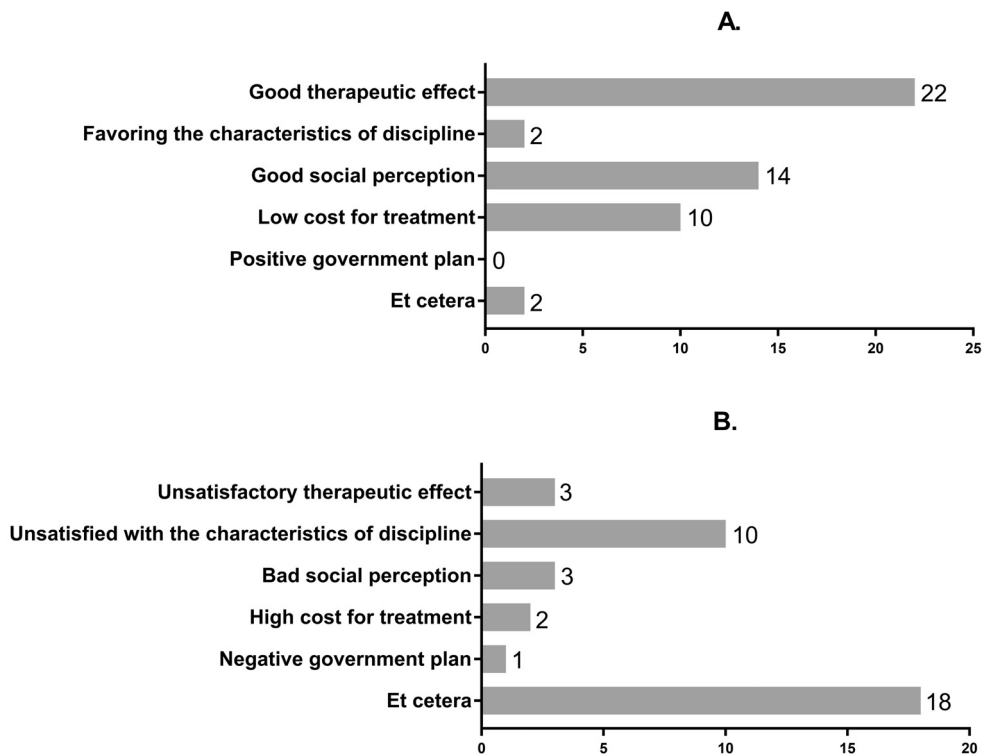


Figure 2. A. Positive reasons for experiencing Korean Medicine healthcare(n=50). B. Negative reasons for experiencing Korean Medicine healthcare(n=37).

*29 participants didn't reply to the survey

로 한의 의료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중 대체로 긍정의 응답이 많았다. 한의 의료에 긍정적인 이유에 대한 세부 항목 응답 중 ‘치료 효과가 좋아서’라는 항목이 31명(53.4%)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한의 의료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한 세부 항목 응답 중 ‘학문의 특성이 의심스럽다’는 항목이 6명(33.3%)이며, ‘기타’ 항목에 9명(50.0%)이 답하였다. ‘치료 지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항목과 ‘정부 정책이 비관적’이라는 항목에는 응답자가 없었다(Figure 3).

5. 진학 호감도와 치료 호감도의 상관관계

한 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호감도 응답과 한의 의료 호감도에 대한 응답의 spearma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참여자 116명 중 진학 호감도와 한의 의료 호감도를 모두 응답한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 rho는 0.5763으로 ($p < 0.0001$)로 유의하였다(Figure 4).

IV. 고찰

대학 관계자들과 정신 건강 전문가들에게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학생 유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대학 입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탈 없이 이수하는 데에는 학문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적 적응, 대학 캠퍼스 삶에서의 용화가 중요하게 작용한다¹¹⁾. 학과에 따른 사전 지식 및 인식 역시 입학에 중요한 요소이므로¹²⁾ 잠재적 대학 신입생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의 학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기존 환자의 치료 계획을 유지하고, 새로운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¹³⁾, 이 목적에 부합하는 마케팅을 할 경우 의료 서비스는 타 서비스 마케팅보다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¹⁴⁾. 특히 한의 의료의 경우, 고령화 환자들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통증으로 인한 활동 제한의 유무, 만성질환의 유무에 따라 한의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고¹⁵⁾¹⁶⁾, 여성 환자이거나, 의사의 수준과 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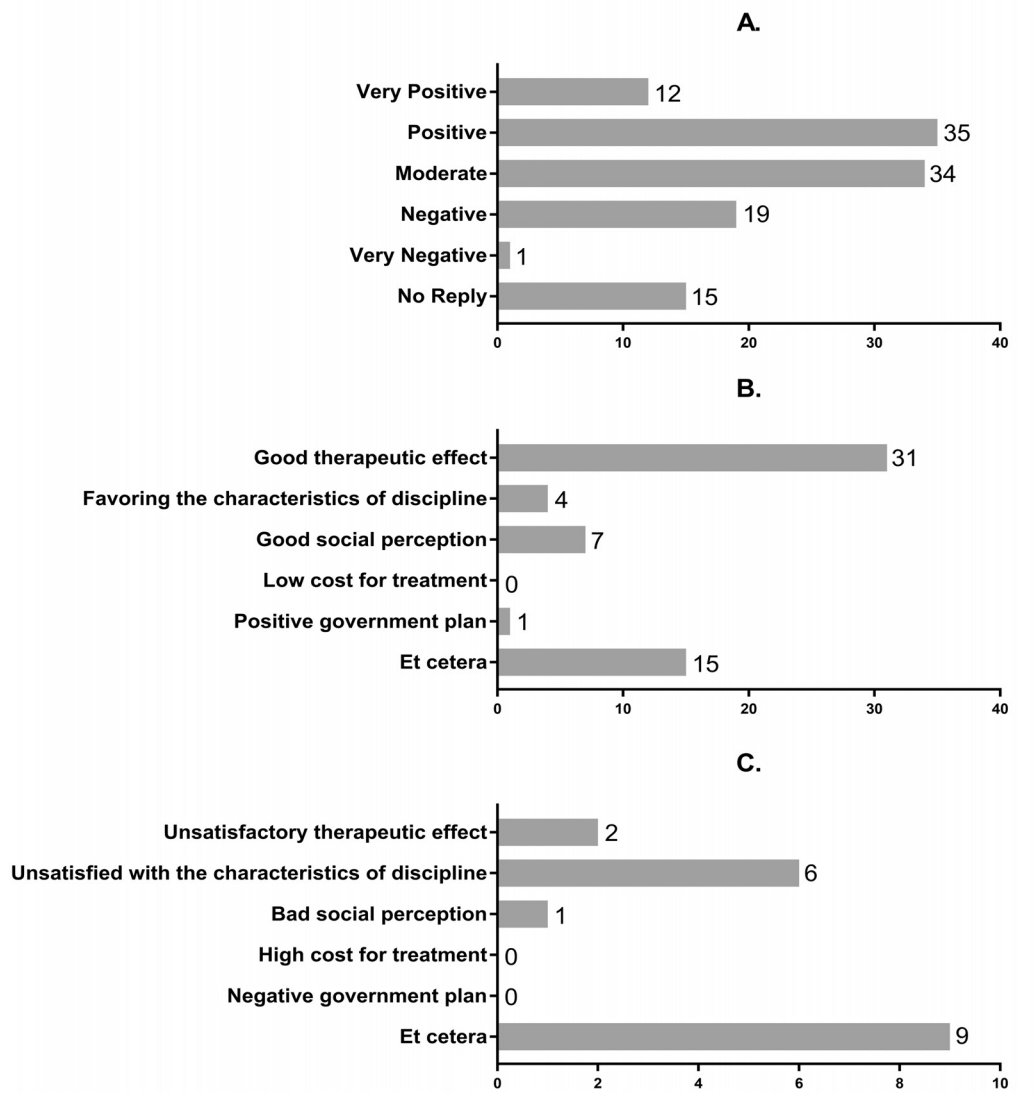


Figure 3. A. The favor of receiving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n=116), B. Positive reasons for receiving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n=58), C. Negative reasons for receiving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n=18).

*40 participants didn't reply to the survey related to B and C.

이 높으며 이미지가 좋을 경우 만족도가 높고 양의 치료와 비교하여도 상대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¹⁶⁾. 이러한 특성상 입학 전 수험생들의 한의과대학 지원을 결정하는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실제 의료 현장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한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한의사 개인적 측면, 그리고 한의학 교육 및 한의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과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유사한

데, 이는 한의 의료 이용 경험이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의 의료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³⁾ 20대가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대부분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로 '직업의 특성' 항목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의사를 포함한 일부 전문직이라 불리는 직업들은 일반적인 직업들과 구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이후 한의학이 면허 제도를 확립하고, 교과 과정을 정비하는 등 전문화를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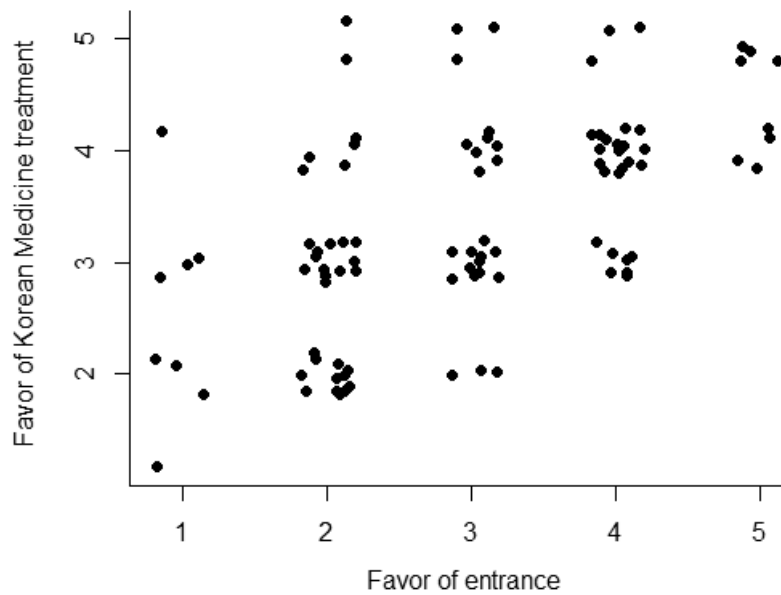


Figure 4. Scatter plot of each likert scale of the favor of entering a Korean Medicine college and the favor of receiving Korean Medicine healthcare treatment(n=100,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0.5763).

성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¹⁷⁾. 따라서 고용 불안정성 및 직업세계의 빠른 변화 속에서 취업 가능성이나 안정성은 수험생의 전공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¹⁸⁾을 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로서의 직업 안정성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내 한의학 관련 부서의 확보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한의학은 보다 전문화된 의학으로 발전해 나갔으며¹⁷⁾, 의과대학 진학 요인 중 하나인 인간에 대한 관심¹⁹⁾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종¹⁹⁾²⁰⁾이라는 점, 그 외 의료인으로서 진로 선택에 큰 요인인 환자를 도울 수 있다는 점¹⁹⁾²⁰⁾이 마찬가지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긍정적 요인이 되어 직업의 특징 항목을 선택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과대학 진학 선택 시 가장 주체적인 결정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기존 연구¹⁹⁾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동일한 의료계열 직종으로서 한의과대학 선택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의과대학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교육에 의료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병행된다면 입학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반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 ‘학문의 특성’ 항목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 연령대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의 치료의 개선 사항에 대한 물음의 응답으로 고가의 진료비에 대한 개선이 33.3%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고, 치료 효과 및 과학적 근거 제시가 8.4%의 응답으로 7개의 응답 중 5번째로 높은 응답³⁾이었다는 점과 비교된다. 또한 서울시 대학생 중 한의 진료를 받을 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도 한의 치료 행위에 대한 신뢰도는 67%를 기록한 반면, 한의학 기초 이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응답 비율은 35%로써 본 설문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한의 치료 경험자의 경우에도 한의학 기초 이론에 대한 신뢰도 항목에는 다른 항목에 비해 긍정적 응답이 현저히 적게 관찰되었다⁷⁾.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10대 및 20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한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할 경우 한의학의 이론적 체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최근 연구 성과 위주로 홍보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의원 및 보건소를 내원하여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이 평생 동안 한의 진료를 받아 본 적이 있다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73.8%,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 26.2%이라는 동향과 유사한 것³⁾을 알 수 있다.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이유로는 ‘치료 효과가 좋다’는 항목의 응답 비율이 가

장 높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한의 외래진료 서비스를 받았을 시 치료 효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4.2%를 차지하였다는 점³⁾, 연령대를 아울러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의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³⁾, 한의 치료기관 방문자들이 한의 치료를 선택한 이유로 한의 치료가 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이유³⁾ 등을 토대로 한의 의료 서비스의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통증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²¹⁾하므로, 특히 수험생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에 대한 한의 의료의 우수성을 알린다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들이 가장 만족한 치료로는 침 치료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한 곳의 한의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침 치료를 받은 경험에 대한 물음으로 46.8%가 그렇다는 응답을 한 연구²²⁾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구가 침이며, 수험생 입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침 치료를 선택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받지 않은 이유 항목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기타' 항목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응답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직원의 친절도의 차이¹³⁾, 평소 양방 병원이나 약국에 내원하는 습관³⁾, 혹은 한의 치료를 필요로 느끼지 않기 때문³⁾ 등 개개인의 다양한 입장이 한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표현되었다 할 수 있다.

한의 의료 호감도에 대한 응답은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았으나, 기존에 보고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³⁾에 따르면 응답자 5,507명 중 62.6%가 한의 의료에 신뢰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의 의료에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10대 및 20대의 한의 의료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호감도 응답과 한의 의료 호감도에 대한 응답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5763으로 비교적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²³⁾를 보인다. 따라서 한의과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의학 의료 자체에 호감을 어느 정도 가지는

학생이라 볼 수 있다. 본 결과의 해석을 한의과대학 입학 요인 중 적성이 입학 이유가 된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²⁴⁾, 한의 의료에 대해 호감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적성이라 생각하거나 자신의 적성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입학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한의과대학 입학처 혹은 관련 개인이나 단체가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 의료에 대한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상 지역의 선정, 표본의 규모 등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168명의 응답자 중 116명이 설문문에 응답하여 52명이 설문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한 168명이 전체 수험생을 대표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응답 결과의 비뚤림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응답자들 대부분이 자연계열 학생이라는 점, 한의 의료에 대한 호감도 및 한의 의료 선택한 이유의 응답 중 '기타' 항목의 비율이 높게 나왔으나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한의과대학 및 한의 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인 '학문의 특성'이라는 응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인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만들고,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을 추출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한의학에 대한 수험생들의 인식과 한의과대학 진학 동기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116명을 대상으로 크게 한의과대학 진학 희망 여부, 한의 의료 경험 유무, 한의 의료 호감도에 대해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율과 부정적인 비율은 유사했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직업의 특징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부정적인 이유로는 학문의 특성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수험생이 그렇지 않은 수험생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이유로는 치료 효과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한의 의료 호감도에 대한 응답은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았으나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다르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의 의료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로는 '치료 효과'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부정적인 이유로는 '기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다.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호감도 응답과 한의 의료 호감도에 대한 응답의 spearman 상관계수는 0.57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한의과대학 진학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 한의학 연구 현장에서 진행되는 현대 과학적 연구, 그리고 치료 효과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또한 각 한의과대학 입장에서는 미래의 소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여 홍보 전략을 세운다면, 수험생들의 진학 의지 고취에 보다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Yin CS, Ko SG.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korean medicine: a unique integrated system of allopathic and holistic medicine.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4; 2014:740515.
2. Year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ublication Commission, 2016 Yearbook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8:43.
3.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2017 Korean Medical Utilization & Korean Medicine Consumption Survey. Seoul: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2018:293.
4. Huh NW, Jeong SA, Kim SJ, Mok NR, Park HW, Shin HK. Attitude and Recognition of Medical School Students o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Diagnosis and Treatment. *J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3;17(1):107-116.
5. Ryu JS, Lim BM, Cho BM, Lee WC, Yoon TH. Consciousness on co-operative practices between doctors who working in cooperative practicing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 *J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09; 13(3):29-41.
6. Kim JI, Myeong YS, Ahn SY, Lee YJ, Cho CS. The Research about Image on Korean Medicine. *Korean J Intern Med*. 2014;35(3):354-365.
7. Park JK, Yim JH, Kim HH, Park YJ, Park YB.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Korean Medicine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 Survey Research. *J Korea Instit Orient Med Diagn*. 2014;18(3):187-204.
8. Ryu B, Kim SB. A Study on College Selection Factor and Causality of the Examinee. *Korean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Conference Papers*. 2005:767-777.
9. Chung SH, Lee SM, Jeon JH, Kim JH, Kim YI. The Research about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n Korean Medicine. *Journal of Haehwa Medicine*. 2013;22(1):105-118.
10. Seong NH. The Relationship among Sports Star Image ads, College Image and College-preparatory Choice.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017;68:79-87.
11. Gerdes H, Mallinckrodt B.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 Couns Dev*. 1994;72(3):281-288.
12. Kim HJ, Lim KO, Kim YJ. A study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school subject degree of recognition before admission and satisfaction. *J Korean Soc Dent Hyg*. 2006;6(2):115-127.
13. Kuh SY. A Study on the Consumer Satisfaction on Medical Service.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1996;11(2):67-90.
14. Bowers MR, Taylor JA. Product line management in hospitals: an exploratory study of managing change. *J Healthc Manag*. 1990;35(3):365.
15. Park JE, Kwon SM. Determinants of the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J Korean Med*. 2011;32(1):97-108.
16. Seo YJ, Kang SH, Kim YH, Choi DB, Shin

- HK. Systematic Review on the Customers' Use of and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J Korean Med*. 2010;31(1):69-80.
17. Ji LH. A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Profession and the State: Focusing on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Organization. *J Physiol & Pathol Korean Med*, 2002; 16(1):58-61.
 18. Gong Y.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adjustment who decided on their majors primarily based on extrinsic motiv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4; 27(1):1-18.
 19. Hyppölä H, Kumpusalo E, Neittaanmäki L, Mattila K, Virjo I, Kujala S, et al. Becoming a doctor — Was it the wrong career choice?. *Soc Sci Med*. 1998;47(9):1383-1387.
 20. Kang PS, Kim SB, Hwang TY. Premedical students' motivations for a career as a physician. *Korean J Med Educ*. 1994;6(1):9-19.
 21. Seo JY, Kim MY. Stress, physical symptoms, and coping styles of high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 Res*. 2006;12(4):470-477.
 22. Jang JH, Kim KS.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for University Freshmen—Focusing on Dongguk University Freshman. *J Korean Med*. 1993;14(1):305-325.
 23. Mukaka MM. A guide to appropriate use of correlation coefficient in medical research. *Malawi Medical Journal*, 2012;24(3): 69-71.
 24. Kwon SW, Shin SW, Lim BM. A survey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2;33(1):1-11

[부록]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

본 연구는 10대와 20대의 한의학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로, 동신대학교 한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이며, 참여자의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기본 인적사항]

1. 본인의 연령대는?

- ① 10대 ② 20대

2. 본인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현 거주지는?

- ① 서울·경기 ② 강원도 ③ 충청도 ④ 전라도 ⑤ 경상도 ⑥ 제주도 ⑦ 기타(해외)

4. 수능 응시 유형은?

- ① 인문계(문과) ② 자연계(이과) ③ 기타(응시연령이 아니거나, 해외거주자)

[설문 항목]

1. 본인의 한의과대학·한의전문대학원 진학 희망에 대한 호감도는 어느 정도 이신가요?

-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1-1. (①,②, 선택자) 한의과대학·한의전문대학원 진학 희망에 1.과 같은 답한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신가요?

- ① 치료 효과가 좋아서
② 학문의 특성이 마음에 들어서
③ 직업의 특성(예: 의료인, 전문직, 기대소득 포함)이 만족스러워서
④ 정부 정책이 우호적이라서
⑤ 기타(장래희망의 차이 등)

1-2. (④,⑤, 선택자) 한의과대학·한의전문대학원 진학 희망에 1.과 같은 답한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신가요?

- ①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아서
② 학문의 특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③ 직업의 특성(예: 의료인, 전문직, 기대소득 포함)이 불만족스러워서
④ 정부 정책이 비관적이라서
⑤ 기타(장래희망의 차이 등)

※ ③ 선택자는 1-1, 1-2 중 하나만 선택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본인은 현재 한의과대학·한의전문대학원 수시 전형에 지원하셨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3. 현재까지 한의원·보건소에 내원하여 한의치료(한방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 ① 예 ② 아니오

| | |
|---|--|
| <p>3-1. (① 선택자) 3번 문항에 ①과 같은 답한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신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치료 효과가 좋아서 ② 학문의 특성이 마음에 들어서(예: 본질을 치료한다는 홍보) ③ 사회적 인식이 좋아서(예: 주변인의 권유, 경험담 등) ④ 치료 지출 비용이 적게 들어서 ⑤ 정부의 정책이 우호적이어서 ⑥ 기타 | <p>3-2. (② 선택자) 3번 문항에 ①과 같은 답한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신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치료 효과가 의심스러워서 ② 학문의 특성이 의심스러워서(예: 표준화의 부재) ③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예: 주변인의 비판, 경험담 등) ④ 치료 지출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⑤ 정부의 정책이 비관적이어서 ⑥ 기타 |
|---|--|

4. 한방 치료행위 중 본인이 가장 만족하는 치료는?

① 침 ② 한약 ③ 추나 ④ 뜸 ⑤ 기타

5. 한의·한방치료에 대한 본인의 호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 | |
|--|--|
| <p>5-1. (①,②, 선택자) 한의·한방치료에 대한 본인의 호감에 5.과 같은 답한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신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치료 효과가 좋아서 ② 학문의 특성이 마음에 들어서(예: 본질을 치료한다는 홍보) ③ 사회적 인식이 좋아서(예: 주변인의 권유, 경험담 등) ④ 치료 지출 비용이 적게 들어서 ⑤ 정부의 정책이 우호적이어서 ⑥ 기타 | <p>5-2. (④,⑤,선택자) 한의·한방치료에 대한 본인의 호감에 5.과 같은 답한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신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치료 효과가 의심스러워서 ② 학문의 특성이 의심스러워서(예: 표준화의 부재) ③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예: 주변인의 비판, 경험담 등) ④ 치료 지출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⑤ 정부의 정책이 비관적이어서 ⑥ 기타 |
|--|--|

※ ③ 선택자는 5-1, 5-2 중 하나만 선택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연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